

# 올 상반기 지방재정 확충 범정부 TF 구성

18대 인수위 백서…지방분권 실천 세부방안 마련

분권촉진위-행정개편위 통합 지방자치발전위로

'2할 차지'로 불리는 협행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법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을 상반기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7일 발간한 '박근혜 정부-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실천과제'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을 상반기 중 지방분권 실천 전략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실시 등을 거쳐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실천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다만, "지방재정 확충 문제는 지방분권의 핵심사항이다 선결

조건으로 가장 시급한 사항이나 국가

재정 여건과 지역간 이해문제, 국가-

지방재정 구조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

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범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청와대 비서실 내에 구성, 을 상반기 중 합리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약속했다.

인수위는 구체적으로 지방시대 선

도와 선진적 지방자치 실천을 위해

▲지방분권 기초 정착 ▲생산적 자자

기반 확대 ▲지방재정 확충 ▲근린자

자 활성화와 낙후지역 삶의 질 개발

등을 4대 중점 분야로 나눠 실천전략

을 수립했다.

우선 인수위는 강력한 지방분권 기

조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촉진위와 지

방행정체계개편위를 지방자치발전위

원회로 발전적 통합하고 지방과의 협

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주재 시·도지

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운영, 지방 관련 법령 제·개정과 함께 자체의 의견 수렴과 반영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는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생산적 자자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7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시·도 다양, 정부 구성 형태의 주민선택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준광역시모델' 도입, 자치법률 범위 확대 및 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가능

강화 등을 실천전략으로 마련했다.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천전략으로는 지방세 등 자주

재원 확대, 국세·지방세 비율을 2017

년까지 현 8:2에서 7:3으로 늘리기

등을 제시했다.

또 생활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자본 축적에 주력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 48일간의 인수위 활동 내용 등을 담은 731쪽 분량의 백서는 총 1만부가 발간됐다. 백서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워클리 공감' 홈페이지(korea.kr/gonggam)에 전자책 형태로 게시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美,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심리 시작

'역사적 재판' 관심증폭

방청권 6천달러 호가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과 관련된 역사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 합법화에 58%가 찬성결론을 내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동성결혼 합법화에 지지의사를 밝혔고, 최근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루 포트만 등 결혼 지지자들은 이에 저항했고, 결국 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연이어 위헌이라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직접 주재하며 찬반토론과 비공개 심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에 동성결혼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놓으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조항(프로포지션8)을 말의해 통과시켰지만 동결혼 지지자들은 이에 저항했고, 결국 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연이어 위헌이라 판결했다.

이번 재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탓에 방청권 확보하려면 무려 6000달러를 지불해야 할 정도라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 방청은 무료지만 방청권을 얻기 위해 며칠이나 심지어 밤새 줄을 서야 하는 만큼 방청권에 비싼 '가격'이 매겨졌다는 것

/연합뉴스

## 적절 시기 이산상봉 北에 제의

통일부 업무보고… 남북 당국간 대화 추진

통일부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협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구하기로 했다.

또 남북 간 신뢰 진전에 따라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북측에 제의하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측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경제적 유인은 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 송환 때 돈을 대가로 지급한 프라이카 우편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책임 있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추진하고 개성공단 국제화와 북한에 대한

투자 등 호혜적 교류·협력을 질서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7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실질적 통일준비를 토대로 한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9대 중점과제를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밝힌 대 통령에 보고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인도적 문제 실질적 해결 ▲당국 간 대화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호혜적 교류협력 ▲개성공단 국제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기여 등을 보고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외교·대북정책의 방향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회복해 평화정착,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하나 하나 쌓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외교, 통일정책 모두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이 크게 바뀐다든지,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정책방향이 바뀌는 일 없이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U대회, FISU 1차 점검 합격

2015 광주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광주U대회) 준비상황이 합격 판정을 받았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은 27일, 산하 국제기술위원회(CTI)의 1차 광주U대회 준비상황 점검 결과 '현실적인 노력으로 잘 준비됐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에 알려왔다. 존 워너 위원장을 단장

으로 한 CTI 점검단 34명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광주를 방문, 종별별로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1차 CTI 점검에서 제외됐던 조정 종목에 대한 점검은 오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전 종목에 대한 제2차 CTI 점검은 오는 2014년 상반기 실시될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한국인 WTO사무총장 나오나

정부, 박태호 전 통상본부장 지원 주력

1차 지지도 조사가 첫 관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7일 오후 박 후보에게 대외직명대사인 경제통상사 임명장을 전달한 후 막판 선거 전략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18일부터 장관 특사 4명을 아프리카와 중동, 서남아시아, 카리브 지역에 파견했고, 각국의 우리 공관장들을 통해 박 후보 지원을 요청해 왔다.

박 후보는 올해 초부터 대륙을 오가며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중견국인 우리나라와 국제통상 전문가인 자신이 적격임을 적극 홍보중이다.

1차 지지도 조사를 통과한 후보들을 상대로 2·3차 라운드가 진행돼 각각 3명과 1명이 탈락한다. 마지막까지 남은 1명의 후보는 회원국들의 합의를 거쳐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대된다.

/연합뉴스

## 전남, 난개발 막아 아름다운 경관 만들다

전국 첫 사전경관·도민경관제안제 운영

전남도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는 처음으로 사전경관제안제를 도입한다. 모든 개발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과 사업 시행자가 경관을 협의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자는 제도다.

전남도는 27일 "경관조례를 개정해 도내 각종 개발사업 시행전 초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경관 협의를 의무화하는 사전경관제

의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사전경관협의 대상은 전원마을 등 농산어촌 경관 개선사업, 행복 마을 조성사업, 도로 개설, 하천 정비사업, 해양항만사업, 유통지역에서 높이가 21m 이상의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개정된 공공디자인조례는 국

비·도비 지원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의 사업 추진 시·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으로 한 CTI 점검단 34명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광주를 방문, 종별별로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1차 CTI 점검에서 제외됐던 조정 종목에 대한 점검은 오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전

종목에 대한 제2차 CTI 점검은 오는 2014년 상반기 실시될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으로 한 CTI 점검단 34명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광주를 방문, 종별별로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1차 CTI 점검에서 제외됐던 조정 종목에 대한 점검은 오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전

종목에 대한 제2차 CTI 점검은 오는 2014년 상반기 실시될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으로 한 CTI 점검단 34명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광주를 방문, 종별별로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1차 CTI 점검에서 제외됐던 조정 종목에 대한 점검은 오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전

종목에 대한 제2차 CTI 점검은 오는 2014년 상반기 실시될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으로 한 CTI 점검단 34명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광주를 방문, 종별별로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1차 CTI 점검에서 제외됐던 조정 종목에 대한 점검은 오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전

종목에 대한 제2차 CTI 점검은 오는 2014년 상반기 실시될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으로 한 CTI 점검단 34명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광주를 방문, 종별별로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1차 CTI 점검에서 제외됐던 조정 종목에 대한 점검은 오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전

종목에 대한 제2차 CTI 점검은 오는 2014년 상반기 실시될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으로 한 CTI 점검단 34명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광주를 방문, 종별별로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1차 CTI 점검에서 제외됐던 조정 종목에 대한 점검은 오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전

종목에 대한 제2차 CTI 점검은 오는 2014년 상반기 실시될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